

제17회 담양 가로수사랑음악회 성료

가을하늘 수놓은 감미로운 음악의 향연 선 배 박상민·이재성 등 수준 높은 무대 관객 대만족



단풍이 붉게 물들어 가는 계절, 자연과 환경을 노래하는 가로수사랑음악회가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에서 열려 관광객, 군민들에게 아름다운 가을날의 선율을 선물했다.

담양가로수사랑군민연대 주관으로 지난 9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호남기후변화체험관 야외무대에서 열린 '제17회 담양 가로수사랑음악회'는 주말을 맞아 가로수길을 찾은 관광객, 군민 등 3천

여명이 자리해 성황을 이룬 가운데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가량 아름다운 선율과 열정적인 무대로 공연장을 뜨겁게 달궜다.

이번 가로수음악회는 본공연(초대 가수 무대)에 한때 가요계 정상에 올랐던 '청바지 아가씨' '무기여 잘 있거라'의 가수 박상민을 비롯 가을을 노래하는 가수 '가을 사랑'의 신계행, '훗날잔치' '그 집앞'으로 큰 인기를 얻었던 가수 이재성, '달빛창가에서' '선녀와 나무꾼'으로 유명한 도시아이들이 출연해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본공연에 앞서 열린 1부 <담양을 사랑합니다> 무대에서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듀엣 콰르텟 가수 박민성이즈 공연을 비롯 퓨전국악 '루트머지', 담양출신 가수 김동규와 이영하 등이 출연해 감미로운 음악으로 가을정취를 선사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가로수사랑음악회를 찾은 관객들은 "정말하고

많은 가을하늘과 단풍으로 채색되어 가는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풍경 속에 감미롭고 아름다운 음악의 향연을 감상할 수 있어서 모처럼 제대로 힐링하는 기분이었다"면서 "일상에서 쉽게 만날 수 없는 유명가수와 초청가수들의 노래를 바로 가까이에서 생음악으로 들을 수 있어 더 좋았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가로수사랑음악회는 지난 2000년, 담양-순창간 도로 확장공사로 베어질 위기에 있던 지금의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을 지켜낸 이후 해마다 가로수길에서 열리는 담양의 대표적인 환경음악제이다.

올해 가로수음악회는 광주mbc 특집방송으로 진행됐으며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15분부터 4시까지 진행되는 라디오 FM 93.9 채널 '놀라운 3시' 프로그램에서 공연 실황을 다시 들을 수 있다.

담양=박종영 기자

곡성군강빛마을의힐링마이스무료체험

곡성군 죽곡면 강빛마을에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강빛마을주식회사가 아담한 소형 마이스룸을 개설하고 시범사업으로 3회에 걸쳐 1박 2일의 무료 힐링마이스 프로그램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한다. 11월 14일 저녁부터 15일 오후까지 열리는 제1회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대표 또는 사원복지나 교육 훈련 등 관련 업무담당자 30명을 대상으로 강빛마을에서 힐링하면서 연수하고 휴양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체험한다. 한 회사에서 2명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회와 제3회는 제1회 과정에 참가한 기업이 자기 회사의 힐링마이스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제안하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서 기업이 정한 일시와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숙박비와 시설사용료 등 250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따라서 제1회에서는 강빛힐링마이스 프로그램의 취지와 기업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알리고, 힐링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곡성의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를 소개한다. 또한 강빛마을 인근의 독도사건관, 조래일시문학기념관, 태안사를 둘러보고 곡성군 대표음

식인 참깨매운탕으로 점심을 한다. 이어서 섬진강 레일바이크와 두가현(차집) 등 섬진강편의 관광 시설 일부를 직접 체험해보는 기회도 갖는다. 특히 이에 앞서 강빛마을 주민인 김화중 서울대 명예교수(제42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직장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특강을 청해 듣고, 그 부군인 고현석 민선 2·3기 곡성군수의 안내로 강빛마을 앞 대항강(보성강 하류) 건너 '남도 오백리 역사숲길'을 산책한다. 김화중 전 장관은 서울대 교양 과정에 '대학생의 건강관리'를 개설하여 국회에 진출하기 전 10년 동안 명강의로 최고의 인기를 얻었던 명성이 있다. 최근 강빛마을(주)가 주관하는 인문학강좌에서 "건강, 원리를 알고 관리하자."를 청강한 참가자들로부터 절찬을 받기도 했다.

제1회 강빛힐링마이스 프로그램에 참가하려면, 성명, 기업체명과 직책, 연락처(휴대전화번호)를 전화 (061.362.3800) 또는 문자 (010.9548.2800), 팩스 (061.363.5369) 또는 이메일 (ybvirus@naver.com)로 오는 13일(수요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30명까지 선착순 마감이다.

곡성=김광휘 기자

보성군, 제22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대통령상 수상기념 공연



보성군은 오는 18일 보성군문

화예술회관에서 제22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김미진 명창의 공연을 선보인다.

김미진 명창은 지난 5월 보성에서 개최된 제22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전국관소리·고수경연대회 관소리 부문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명창의 반열에 올랐다.

이번 공연은 김미진 명창이 명창으로 선보이는 첫 공연이며 김

미진 명창의 관소리와 창극, 산조 합주, 우리 춤 및 남도민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서편제 보성소리의 본향 보성군은 문화복지와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해 올해부터 대통령상 수상자에게 단독 공연의 무대를 제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보성소리를 즐기고 폭넓게 향유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만든 무대이니만큼 지역민들께서 많이 찾으셔서 보

성소리를 대표하는 김미진 명창의 소리를 감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편제 보성소리 축제는 올해로 제22회를 맞았다. 전국관소리·고수 경연대회도 대회의 격을 높이기 위해 명창부 대상 상금을 4천만원으로 올리는 등 보성군과 서편제보성소리축제추진위원회는 세계무형유산인 관소리의 계승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보성=안구일 기자

여수시,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 추진



여수시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2019 겨울철 도로제설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제설대책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겨울철 폭설에 대비해 교통두절 예상 구간 등을 사전에 지정·관리하고 비상시 제반 사태에 수습계획을 마련코자 한 것이다.

여수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국도, 지방도, 시도 등 2,706개 노선으로 총 1,107km에 달한다. 이중 취약구간 59개소 노선

(88.8km)을 1구역과 2구역으로 편성하여 제설대책 수립을 완료했다.

시는 공무원의 비상근무체제를 재정비해 도로시설관리과 직원 등 30명으로 구성된 제설대책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여수시는 연화칼슘과 액상 제설제, 모래, 덩프, 굴삭기 등 제설장비를 확보해 비상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적설로 인해 결빙이 예상되는 59개 노선에는 11월 말까지 모래주머니를 비치하고 액상 제설제 공급장소 5개소를 설치하여 교통두절구간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시는 이 외에도 방송 매체를 활용해 홍보하고 기상특보 시 비상근무체제 및 비상 연락망 구축, 위험도로 구간담방책임제 운영 등 제설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수=송기홍 기자

나주시, '나도 강사다' 농사 비법 발표대회 개최

나주시는 14일 오후 2시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여성 전문 농업경영인력 육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시는 이날 정책토론회와 함께 농업 노동의 강도를 줄이고, 쉽게 농사를 짓는 노하우를 공유·전수하는 '나도 강사다, 나만의 농사비법 발표 대회'도 실시할 계획이다.

1부 정책토론회는 오미란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과장, 임연화 나주시 여성농업인지원팀장의 주제 발표와 농업분야 현안에 대한 4개 분야 종합토론으로 구성됐다.

종합토론은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연구센터장을 좌장으로 △여성농업인 지원센터의 역할 및 확대 △귀농·귀촌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지원 방안 등 4개

주제별 패널을 초청해, 발표와 토론을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수 십 년 또는 대대로 축적해온 농사 비법을 지역 농업인과 공유하는 소통과 배움의 장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되는 2부 '나만의 농사비법 발표대회'는 지역 농업인 5명이 5개 주제로 자신만의 농사 노하우를 발표한다.

특히 반복되는 농작업과 가사

노동으로 소위 '골병'을 앓는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효율적인 농사법을 전수하는 등 농업 노동의 변화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행사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관할 읍·면·동 농정팀 및 나주시 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번호사)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사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민적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